

## 이세준 작가노트

이번 전시 <이것은 나(너)의 그림이 (아니)다>에 출품한 작품 중 일부는 나와 정현두 작가가 서로의 작업 스타일을 연구하고 분석하며, 상대방의 스타일 대로 그리려는 시도를 통해 나온 것들이다. 작업의 스타일? 작가의 정체성? 작품? 어떻게 말해야 정확한 단어일까. 사실 난 이제는 스스로가 다른 이들과 차별화된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작품 활동을 막 시작할 무렵 즈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여년 전에는 나도 '이세준만의 그림 스타일'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작가와 차별점을 두고 나만의 독창적인 시각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개성 있으면서도 매력있는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고 싶다..' 따위의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다. 지금 돌이켜 보면 민망스럽지만 얼마 간은 작위적인 스타일링의 시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내 몸에 맞지 않는 것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그렇기에 현재의 나는 적어도 의식적으로 어떤 인위적인 스타일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그림을 그린다. 그냥 지금 그리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의 그리기를 상상하는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그리기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나는 다른 이들의 작업을 보면서 그들의 예술적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 생각하곤 하는데, 가끔 그것들이 쉽게 잘 파악되지 않는 작품을 만날 때가 있다. 나에게서는 정현두의 작업도 그러한 것들 중 하나였는데, 그가 그의 그림을 통해서 닿고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언지가 아리송했다. 명쾌한 논리와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회화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단순하게 자신의 감각만을 쫓아서 완성되는 것도 또 아닌듯 싶어 보였다. 작가에게 직접 그림에 대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기도 했지만 주관적인 내적 논리와 규칙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와 (태도적인)완성에 도달하려 하고 있음을 이해했을 뿐, 그 궁극적인 이미지가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는 잘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현두의 작업에서 늘 같은 정도로 유지되는 어떤 항상성을 보았고(내게 있어서 항상성은 작품을 평가하는 중요 기준 중 하나이다) 작가가 작업을 대하는 태도도 좋은 쪽으로 나에게 자극을 주었다. 내게는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붓 자국과 색채에서 매력을 느꼈고, 작업적인 영감도 받을 수 있었다.

내가 처음 정현두의 작업을 흉내내 보고 싶다고 생각한 건 2020년 여름, 경기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해 있던 정현두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였다. 윌링엔딩링에서의 전시 <얼굴을 던지는 사람들>연작(2019) 이후 그려진 회화들을 설명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붓을 들고 캔버스와 마주해야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2021년 봄에 어쩌다보니 함께 작업실을 구해 사용하게 되면서 상상만 하던 이 계획을 비로소 시도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붓을 손에 들고 나서야 그림을 보는 것과 직접 그리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우리가 서로의 작업 스타일을 따라 그리려는 시도를 하기로 하고 내가 기대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그림을 흉내내 그리면서 내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감각을 자극 받고,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스터디 개념의 접근이었다. 내가 해본 적 없거나 선호하지 않았던 방식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내 작업의 깊이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속셈이 있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나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내 작업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연구한 여정을 따라서 함께 살펴준다면 관람자들 역시도 이세준과

정현두의 작업을 보다 깊게 이해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시도를 통해서 서로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표현이라던가 태도? 혹은 색채? 그런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또 우리의 결과물들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을 우리는 작가만의 특별한 정체성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이런 여러 기대들을 품고 시작한 프로젝트는 내 생각만큼 원활하게 흘러가지는 않았다. 붓을 잡고 캔버스에 물감을 쓱 바르는 첫 터치때부터 뭔가 '아..어라..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현두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 나는 뒤에서 그의 작업 과정을 수도 없이 관찰했고, 의문이 생길 때마다 그와 질문과 대답을 주고 받았지만 얼핏 그의 그림을 이해했다고 믿는 것과 그 작가가 되어 그 처럼 그림을 새롭게 그려내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아니 형상이라도 좀 있다면 더 쉬울 거 같은데, 정현두의 작품은 오히려 형상이 부재한 자리에 붓질, 색, 질감 등이 더욱 섬세하고 도드라지게 드러나 있었다. 게다가 내가 관찰한 그는 그림을 계속 덮어가며 그린다. 처음 그림을 시작할 때와 완성된 그림이 아예 다른 색, 다른 구도일 때도 흔했고, 처음 칠했던 자국들을 모두 덮어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것들은 나의 그림그리는 과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특징인데, 내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면서 최대한 적게 덧칠하고, 처음 던져놓은 붓자국이 그림 안에서 대부분 가장 큰 역할을 맡게 된다. (정현두 작가의 경우 첫 붓자국은 그림이 완성될 즈음이면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지 오래다.) 이는 그림을 대하는 태도, 그림의 목표와도 연결될 수도 있는데, 나는 본질을 앎고 매끈한 피부로 드러내고 싶어하고 정현두는 살 속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어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정현두 화풍의 그림을 진행하기 위해 붓과 캔버스 천부터 새롭게 준비해야 했다. 처음의 시도에는 그냥 내가 자주 사용해서 익숙한 인조모 붓을 가지고 그렸는데, 질감을 맞추기 위해서 좀 더 탄력이 좋은 돈모 붓으로 바꾸었다. 건성유의 양을 조절해서 물감의 농도를 맞추고, 린넨 천을 직접 구해 오는 등, 천의 질감까지 점검하고 나서야 약간씩 비슷한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막막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았다는 점이다. 내 그림을 그릴 땐 해 나가야 할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서 완성되어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림이 진행된다. 그러나 정현두의 스타일을 따라서 그린 작업들은 완성의 방향성에서 나 스스로가 계속 의문이 생겨서 작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지가 않았다. 마치 사막에서 어디론가 달리면서 거기가 맞는 방향이길 기도하는 마음이었달까.

아무튼 나는 이 전시에는 정현두 작가 스타일로 그린 그림 두 점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이 원래의 내 작업들 속에도 깊게 스미어들었기를 소망한다. 이 전시를 보러와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나와 정현두의 여정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과욕일 수 있겠지만 그림에도 우리가 어설픈게 서로의 것을 훔내낸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의 작업을 관통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